

# - 해외 신규교류 확대사업 - 밀라노 동계올림픽 「코리아하우스」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관 운영을 위한 이탈리아 출장 결과보고

「2026 밀라노-코르티나 동계올림픽」 전북도 코리아하우스 전통문화데이 주간, 전통공예 체험관 운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하고,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연계 글로벌 인지도 제고

## I 출장개요

- 출장기간 : 2026. 2. 13.(금) ~ 2. 19.(목) <5박 7일>
- 출 장 지 : 이탈리아(밀라노)
- 출 장 자 : 국제진흥팀 오효정 주임
- 참여인원 : 총 1,050여명(코리아하우스 초청인사, 일반 관람객 등)
- 주요내용
  - 2026 밀라노-코르티나 동계올림픽 「코리아하우스」 방문객 대상 전통 공예품 만들기 체험관 운영

## II 주요내용

### 1] 코리아하우스 관람객 대상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관 운영

- 운영일시 : 2. 15. ~ 2. 17. (3일간) 13:00~19:00
- 운영장소 : Villa Necchi Campiglio(코리아하우스 내 팀코리아존)
- 참여대상 : 총 1,050여명 ※ 공예체험 참여 550명, 단순 전시 관람 500여명
- 주요내용 : 전통공예품 전시 및 공예품 만들기 체험 총 28회차 운영

일시		체험 내용	체험 인원	운영횟수
<b>1일차</b>	2. 15.(일)	1] 한지 버전 드림캐처 만들기 체험	총 150명	총 10회
<b>2일차</b>	2. 16.(월)	2] 전통 조각보 봉투 만들기 체험	총 180명	총 10회
<b>3일차</b>	2. 17.(화)	3] 보자기 마그네틱 만들기 체험	총 220명	총 18회

- 전북특별자치도 및 한지·보자기·색동 소개
  - \* 한국 전통 보자기 : 물건을 감싸고 보관하거나 선물을 포장할 때 사용되는 소재로,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전하는 우리 문화를 상징
- 전통 '버선' 소개 후, 전주 한지로 복을 불러오는 '한지 버선 드림캐처' 제작
- '복을 담아 전하는 마음'이라는 의미를 가진 '조각보 봉투' 제작
- 설날 맞이 코리아하우스 '한국의 날' 연계, 길상·무병장수를 상징하는 색동 원단으로 행운을 담은 '보자기 마그네틱' 제작
- 전통공예품 전시 운영(한지공예·보자기공예품 전시, 체험 샘플 등)
  - 한지 전주드림캐처, 조각보, 색동 보자기 등 전통소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예품 전시
- 이탈리아 밀라노 시민을 비롯한 코리아하우스 관람객을 대상 한국 전통문화 중심지 전북·전주 홍보 및 전북 문화역량 제고

○ 주요사진



▲ (1일차) 한지 버선 드림캐처 만들기 체험



▲ (2일차) 전통 조각보 봉투 만들기 체험



▲ (3일차) 보자기 마그네틱 만들기 체험



▲ 전통 공예품 전시

### III 만족도 조사 결과

- 조사결과 : 만족도 조사 평균 4.86/5점(97.14%)
- 전북 인식 개선율(%) : 18.31%  
(참여 전) 4.01점 → (참여 후) 4.75점

○ 세부 문항별 점수

번호	구분	조 사 문 항	평균 점수	
전북 인식 개선율(%)			18.31%	
1	프로그램 만족도	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?	4.89	4.86
2		프로그램 설명과 안내는 이해하기 쉬웠습니까?	4.80	
3		체험 운영 시간과 난이도는 적절하였습니까?	4.89	
4	체험 전 인식 조사	대한민국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?	2.67	4.01
5		한국 전통문화(한지, 조각보, 보자기 등)에 관심이 있었습니까?	4.72	
6		이번 프로그램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?	4.64	
7	체험 후 인식 조사	이번 체험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십니까?	4.53	4.75
8		전북특별자치도는 한국 전통문화의 중요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까?	4.91	
9		이번 체험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주를 방문하고 싶습니까?	4.81	

○ 참여자 주요 의견

-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, ‘재미있다’, ‘최고였다’, ‘환상적인 경험이었다’는 표현이 반복될 정도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
- (프로그램 구성) “창의적이고 흥미롭다”, “몰입감이 크다”, 대부분 활동이 쉽고 따라 하기 편했으며, 편안하면서도 힐링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
- (전통문화·지역 홍보) 한국 전통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 요소로 언급되었고, 단순 체험을 넘어 한국 전통 문화와 전북·전주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 다수
- (전북 이미지 제고) “올림픽에서의 한국에 대한 좋은 추억이 되었다”, “전주에 방문하고 싶다” 는 의견 확인,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이 한국 전통문화 및 전북에 대한 호감과 이해가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
- (운영·서비스) 운영진의 친절함과 세심한 설명(특히 이탈리아어 안내)에 대한 감사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해, 다국어 안내 및 친절한 응대가 참가자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

## IV 사업평가

### □ 주요성과

- (전북 문화외교 및 올림픽 연계 홍보 성과)
  - 동계올림픽 공식 문화공간인 코리아하우스에서 전통공예품 만들기 체험관을 운영하여, 전북도의 문화역량을 국제무대에 직접 홍보
  - 한지·보자기·색동 등 한국 고유의 전통 소재를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,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
- (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브랜드 경험 제공)
  - 단순 관람이 아닌 '직접 만드는 체험'을 통해 전북·전주에 대한 기억을 개인의 작품과 함께 가져가도록 설계
  - 전주 뱃지\*, 갓볼펜 등 기념품 제공을 통해 체험 후에도 전북·전주를 떠올릴 수 있는 접점 마련 ※ 전북도 : 기념품 지원
- (현지 네트워크 및 운영 역량 강화)
  - 코리아하우스 운영진, 이탈리아 현지 재외동포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
  - 해외 대형 국제행사에서의 전통문화 체험관 기획·운영 경험 축적

### □ 문제점 및 개선사항

- (전시·공간 연출 고도화)
  - 박물관 내 제한된 공간이라는 특수성 존재
  - 단순 체험을 넘어 전북의 명소를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배경 영상·이미지를 대형 백드롭이나 홍보영상에 활용하여 '방문하고 싶은 전북' 이미지 구축 필요
  - 전시품 설명 자료 퀄리티 보완(한지 등 고급 재질로 제작)으로 시각적 완성도·운영 효율 및 전통 공예품에 대한 이해도 강화 필요
  - 영상 시청용 기기를 노트북 대신 태블릿을 활용, 미관 및 공간 활용도 개선 필요

○ (성과 홍보 강화)

- 전북도 차원의 홍보는 있었으나, 기관 인지도 제고 및 성과 확산 측면에서 아쉬움
- 향후 도·유관기관과 협력하되 진흥원도 독자적인 보도계획을 수립하고, 해외 현장 소식과 성과 적극 홍보

○ (기타)

- 전주 배지가 참여자 호응이 가장 좋았으며, 향후 기념품 제작 시 참고

## V 금후계획

- 운영 용역비 지급 : ~3.19.(목)

## VI 언론보도

연번	언론사명	주요내용	링크
1	전북도민일보	 <p>전북자치도,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전북의 매력 알렸다</p>	<a href="https://www.domi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544984&amp;sc_section_code=S1N6">https://www.domi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544984&amp;sc_section_code=S1N6</a>
2	전민일보	 <p>전북도,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...국제대회 운영 노하우 점검</p>	<a href="http://www.jeonmi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3655">http://www.jeonmi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33655</a>
3	현대경제신문	 <p>김관영 전북도지사, 밀라노 동계올림픽 현장 방문... "전주 올림픽 유치 경쟁력 높인다"</p>	<a href="https://www.hd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40819">https://www.hd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40819</a>

4	뉴스후플러스	<p>전북,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'유치 실전수업'</p> <p>코리아하우스'서 전북 문화 예술 알려... 도립극악원 공연 및 공예 체험 등 운영</p> <p>전북특별자치도가 2026 밀라노-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현장을 찾았다. 단순 관람이 아니라, 전주 올림픽 유치를 염두에 둔 '실전형 벤치마킹'이다.</p> 	<a href="https://www.newswhoplu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3947">https://www.newswhoplus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3947</a>
5	연합뉴스	<p>밀라노 코리아하우스에 3만2천여명 방문...동계 올림픽 최고 흥행</p> <p>송고 2026-02-26 09:43</p> 	<a href="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226050100007?input=1195m">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226050100007?input=1195m</a>
6	해럴드경제	<p>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, 역대 최다 3만2000여 명 찾았다</p> <p>온라인 사전 예약 7일 만에 마감 '오감' 깨대한 '재팬 콘텐츠 어빌'</p> 	<a href="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682806?ref=naver">https://biz.heraldcorp.com/article/10682806?ref=naver</a>
7	전라매일	<p>2036 전주올림픽, 밀라노서 답을 찾다</p> <p>김관영 지사 IOC 읍저버 프로그램 참가, 분산 개최·문화 연계 전략 점검</p> 	<a href="http://m.jlmaeil.com/view.php?idx=292163">http://m.jlmaeil.com/view.php?idx=292163</a>
8	마이데일리	<p>K-뷰티·K-팝·댄스·K-푸드 빛났다,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하우스 3만 2000명 방문 '역대 최다'</p> <p>김재훈 18개월 전 빌딩 리빙에 눈을 뜨게 된 '내가 잘못 키우고 있나'</p> <p>'마약 누명' 다크, 소속사 처벌... "죄업 삶에 가뉘려고 폭언"</p> <p>"마리예 흥상" 유명배우 임달말, 안타까운 사임(해직이슈)</p> <p>술·최저권, 큰 부상에 대수술→소변·피주머니... "눈은 재로 죽은 노랑" 고백 [유웨이]</p> <p>"이아브의 환상, 새 시대 열었다" 극찬... '못 믿보드도 올랐다'</p> 	<a href="https://www.mydaily.co.kr/page/view/2026022610461068254">https://www.mydaily.co.kr/page/view/2026022610461068254</a>
9	재외동포신문	<p>밀라노에서 올림픽 경기만큼 뜨거웠던 '코리아하우스'</p> <p>온라인 사전 예약 7일 만에 마감 K뷰티, K팝, K푸드에 오징어게임-캐리비안 등 재한한 콘텐츠 선보여 외국인 방문 비열 높고 만족도 최고 스포츠 외교의 거점이자 선수단 지원 기능 충실히 수행</p> 	<a href="https://www.dongp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6410">https://www.dongpnews.net/news/articleView.html?idxno=56410</a>